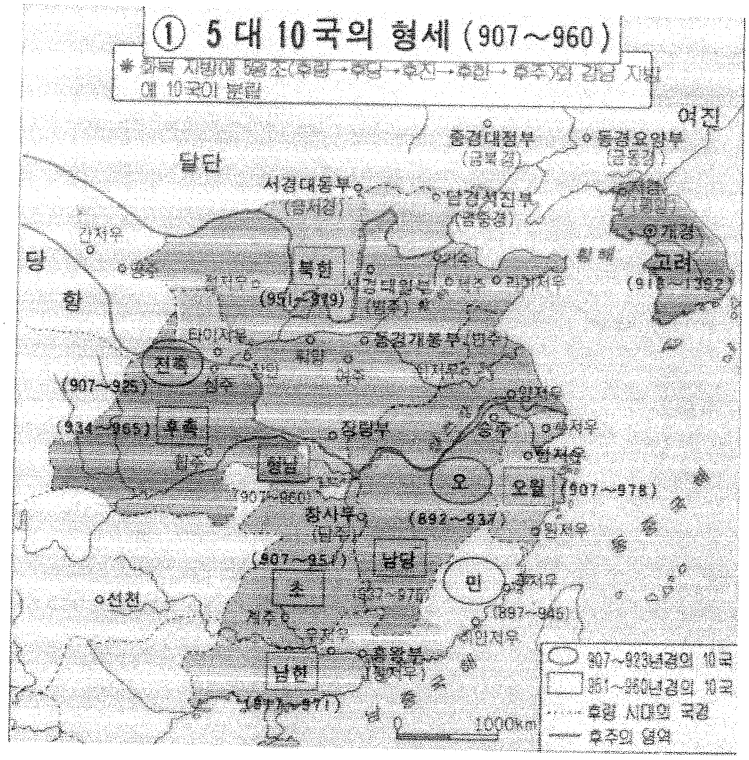
2014년 5월 17일 한외사연구회 이헌미

◎『중국정사 조선전 3』- 『구오대사: 외국열전』



구오대사

-송 태조(973-974) 때 편찬한 5대(후량. 후당. 후진. 후한. 후주) 54년간(907-960)의 정사

-청 건륭제 당시『사고전서』편찬 때 재복원,『무영전간본 구오대사』(1784)가 현전

-정사 중 '외국'으로 일컬은 것은『구오대사』가 처음. 이후 송사, 금사, 원사, 명사가 '외국'으로 요사가 '외기(外紀)'로 적음. cf. 신오대사에서는 '四夷附錄'이라 함. 중국의 천하 일통관념은 1004년 송이 거란과 전연지맹을 맺고 거란을 인정하면서부터

-<구오대사> 외국열전 1에는 계단, 외국열전 2에는 토번, 회골, 고려, 발해말갈, 흑수말갈, 신라 등이 실려 있음

고려

- 구오대사 고려전은『구당서』,『신당서』내용을 옮겨적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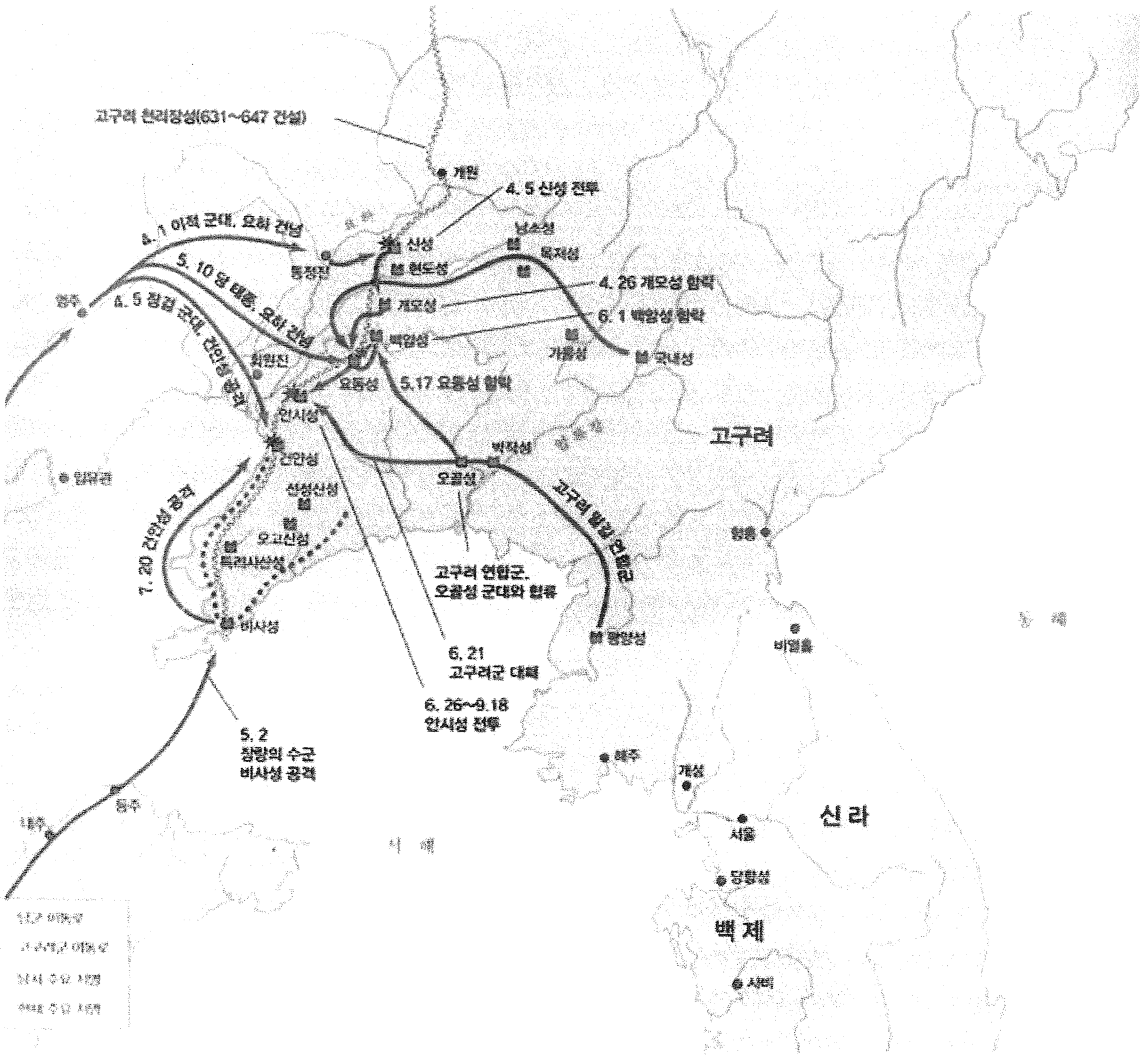
-고구려와 고려를 동일국가로 보고 기술,『송사』,『금사』,『원사』,『명사』에 보두 고구려에서 고려로 승계된 것처럼 기술

* 고려의 고구려 표방, 북방진출에 대한 관심...

ex) 993년 거란의 1차 침입, 서희 "我國 卽高句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 若論地界 上國之東京 皆在我境 何得謂之侵蝕乎"(『고려사절요』성종 12년 10월조)

-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 실패 (안시성 싸움) 기록. (고구려+말갈 15만 vs. 당 60만)

-후당 때 고려가 여러 번 조공, 후주 때 고려가 자수정. 백수정 2천개를 바쳤다고 기록



발해말갈

-말갈: 수.당 시대 만주에 거주하던 퉁구스계 여러 민족의 통칭. 『북제서』에 처음 이름이 보이며,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, 병합하면서 사라짐 (『수서』 말갈전, 『구당서』 말갈전. 발해말갈전, 『신당서』 흑수말갈전, 『구오대사』 발해말갈전.흑수말갈전, 『신오대사』 흑수말갈전)

-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뒤 유민들은 율말.백산 두 말갈부의 협력으로 말갈을 통일, 698년 발해국을 건국 (698-926)